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인사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 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4월 15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0 호

"실직 노숙자에 자비손길"

조계종 '보현의 집' 개설…전국 10여곳에 노숙자 시설 추진

'이웃을 돕는…', 실직자 구호센터 건립

불교계가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실직 노숙자들을 위한 전용 보호소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홈리스 구호대책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8일 "이달중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노숙자보호소인 '보현의 집'을 개설,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현의 집'의 입소 대상은 최근 6개월이내에 실직했거나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이다. 30~60세의 재활의지가 있는 경우 우선 입소된다. 40평규모의 공간에 상담실과 방, 휴게실, 목욕·세탁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매일 40여 노숙자에게 아침·저녁식사와 잠자리를 제공(1회 이용가간 15일 이내)하며 취업상담도 한다.

1억5천만원의 조계종 특별예산으로 마련된 '보현의 집' 운영에는 매달 1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 1명의 관리자를 두고 2명의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가 숙식을 제공하며, 소장스님과 1명의 상담원이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게 된다.

이와관련 복지재단은 18~26일 조계사에서 우리 옷·농산물·소품·먹거리 장터를 마련 'IMF 노숙자 힘터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여는 등 실직 노숙자를 위한 구호활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번 '보현의 집' 개설을 시작으로 서울에 3개소,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시 등 6개 광역시에 각 1개소의 실직노숙자 보호소를 개설키로 하고 각 도시 유력사찰(복지관 운영사찰 위주)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이같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중·소도시로도 실직자 보호소 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노숙자보호 민간차원추진단(가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아래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00억원의 대책기금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호)도 같은날 "서울 중구청의 지원을 받아 '실직자 긴급구호센터'를 건립, 5월부터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말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남대문 경찰서 옆에 건립될 가건물에 들어서는 실직자 종합 구호센터는 실직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 무료진료 종합법률상담 구직정보제공 실직자를 위한 정책개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원장 혜창스님은 "패달음의 사회화운동 차원에서 기존 20여 무료급식소를 활용하는등 노숙자 대책에 종단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달초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전국의 노숙자는 모두 3천여명. 다음달에는 5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노숙자에 대한 보호활동은 종교·민간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하되 급식·임시숙소 설치 및 운영, 의료구호 등에 들어가는 연간 2백억원의 비용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재경 기자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5일 신흥사에서 열렸다. 〈사진=고영배 기자〉

국난극복 불자의지 결집

신흥사 참회대법회 1천여 사부대중 동참

설악산 신흥사 통일대불 앞에서 5일 봉행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에 참석한 1천여 사부대중은 국난극복을 위해 각자의 잘못을 참회하고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가 주최하고 조계종 신흥사(주지 도후)가 주관해 국민화합을 기원한 이날 법회는 33번의 타종 속에서 장중한 육법공양 의식과 개회사 한화 봉행사 법어 기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1부에 이어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기념식수가 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가 사회를 구제하지 못한데 대해 참회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수행자상 회복과 무소유정신 구현, 사회구제 사업, 그리고 보살행 실천에 적극 나서자"고 강조했다.

김무환 前대통령은 기원사에서 "오늘의 위기에는 원인이 있지만, 지금은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스스로 참회하고 어려울수록 남을 돕는 마음을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도 기원사를 통해 "불교계가 금모으기 운동과 실직자 힘터 등 국난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3면으로 이어짐

"선학원 정관개정은 종도 의무"

조계종 입장표명

조계종 총무원은 선학원이 기관지 '선원'을 통해 종단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강도높은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 명의로 9일 발표된 조계종 성명은 "선학원 문제의 핵심은 일부 선학원 이사들의 탈종단화 의도"라고 지적하고 "종단의 기본 입장은 선학원과 갈라서자는 것이 아니라 탈종단화 된 선학원이 종단으로 귀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선원' 제36호에 실린 선학원의 입장(본지 169호 1면 참조)에 대한 종단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계종은 선학원이 정관변경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힌데 대해 "재단법인의 해체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일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 교육원 건립 촉구"

조계종 교육지도자 회의

전국 승가대학 강사급 이상 교육지도자 60여명이 참가한 조계종 교육지도자회의가 9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9면〉

교육지도자회의 참가자 일동은 △기본교육기관을 체계성 있는 승가교육기관으로 정비 △행자교육원의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제난 극복에 매진

교계지도자-문화장관 환담

불교계 지도자와 신낙균 문화부 장관이 9일 한국의 집에서 오찬을 갖고 국가경제살리기 등에 대해 환담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김상초 진각종통리원장,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스님, 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월서스님등 6명의 종단 지도자들은 신장관과의 오찬에서 경제와 실업 대란의 현실을 종교 문화계가 앞장서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불교언론인회' 來 1일 창립

신문 · 방송 종사자 등 200여명 결속

전국의 언론인 불자 200여명이 결속한다.

공종원 조선일보논설위원, 이은윤 중앙일보전문위원, 민병용 한국일보논설위원, 신광식 KBS 연구위원, 유자효 SBS보도제작국장, 김영일 MBC국제부장, 이태행 불교TV본부장 등 신문 방송사의 언론인불자 16명(3명 위임)은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불교언론인회(가칭) 발기인모임을 갖고, 5월1일 오후6시 30분 여의도불교문화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또 이자리에서는 창립준비위원장에 신광식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회칙을 논의했다.

불교언론인회는 언론인 불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며 범종단 차원의 활동으로 한국불교의 현실과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일반 방송 신문사 및 불교계 방송 신문사 임직원들을 회원으로 2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인 불교언론인회는 여의도불교문화센터의 법당과 사무실을 활용하게 된다.

신광식 준비위원장은 "경손하게 출발해서 뜻모으고 한목소리 내는 신심을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할머니, 곶감하고 밤 좀 드세요. 엄마도요." "자네나 먹게."

7일 오후 12시 서울 송파구 방이1동 한 단독주택의 지하 월셋방. 5평 규모의 작은 공간에 두명의 할머니와 딸인 듯한 젊은 보살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알고보니 김애기(94)·유옥화(74) 할머니는 친 모녀지간이었으며, 정영희(46)보살은 이웃집 은미 엄마였다. 은미 엄마가 이들 모녀 할머니를 '엄마'라 부르며 친자식처럼 어리광을 부리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정영희보살은 20년간 이웃집에 사는 두 할머니(거택보호자)를 친부모처럼 보살펴왔다. 그 자신 왼쪽 다리가 불편한 4급장애인이고 남편또한 장애인인 어려운 현실에서도 두 할머니를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공양해 왔다.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에 나가면서 점심시간에는 김애기 할머니 점심공양을 차려주기 위해 들리고 저녁에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할머니집부터 들린다. 식사준비는 물론 집안청소, 빨래 등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장애인의 보살행

할머니들 목욕도 시켜드린다. 연꽃마을 자원봉사자인 정보살은 몸이 아플 때는 연꽃마을 광명의원 등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머리가 자라면 이·미용 봉사자도 불러 다듬어 준다. 어쩌다 맛있는 반찬 등 먹거리라도 생기면 먼저 할머니들께 맛을 보인다.

정보살은 6.25전쟁때 월남, 호적이 없던 이들 모녀 할머니의 호적을 만들어 주면서 인연을 맺었다. 20년 전의 일이다. 10여년전 할머니 모녀가 갈 이 기거할 방이 없어 살갗이 막막해 하자 김애기 할머니는 성당에서 마련해 준 곳에 기거하고 유옥화 할머니는 정보살의 집에서 4년이 넘게 기거했다.

두 모녀가 떨어져 사는 것을 안타까워 하던중 3년전에는 성당의 도움으로 지하실 월세방을 마련해 오손도손 살게 했다. 두 할머니의 생계보조비로 지급되는 25만원으로 방세 10만원, 난방비 20만원을 내면 오히려 부족하지만 정보살의 도움과 한달에 13일(평일일당 1만7천원) 있는 유옥화 할머니의 취로사업으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02)416-5578 〈김재경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역사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

〈맹란자 저〉 신국판/304쪽 값 7,000원

IMF가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실감하는
오늘의 보통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심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여기 그 죽음이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죽음이 또하나의 삶인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고은 시인 추천사에서〉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세네카와 네로, 장체궁과 부의 외 6인
- 사라진 사람들/ 빗속으로 사라진 황제의 유해 카이사르외 9인
- 죽음과의 악수/ 사악을 목격한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해당음과 죽음이 남달랐던 체논과 벽송선사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죽음보다는 철저한 삶을/ 니체와 파스칼, 토마스 카알라일과 소동파
- 예술, 그 광기와 죽음/ 정신병을 앓던 모파상, 슈만, 릴케런, 뭉크
  에드가 앨런 포우와 보들레르, 까미유 끌로델과 나혜석
- 최려한 명성, 처참한 최후/ 클레오파트라와 민비, 우미인과 양귀비, 사도세자와 소현세자
-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불교의 죽음관
  목련존자와 혜가, 공초 오상순과 양관선사, 마더 테레사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 3462-2277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